

[사회 공헌] “열무김치로 사랑 나눠요” 코스콤, 김치만들기 봉사



-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저소득가정 300세대에 전달할 열무김치 만들기 봉사에 나섰다.
- 2일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코스콤 임직원 13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 텃밭에서 열무김치 300kg 담그기 및 양말선물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.
- 이날 직접 열무김치를 담근 정지석 사장은 “작은 손길이지만 댁에서 맛난 김치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”며 “코스콤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봄 문화 확산에 힘쓸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한편 코스콤은 지난 2016년부터 홀몸어르신,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천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빵 나눔,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.

